

통권 제9호 93.10

월간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제9호 매월15일발행 / 공보처등록 라-6124 1993.7.8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발행

# 항공우주산업동향

1993.10.

사단  
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I. 정부관련시책

<input type="checkbox"/> '94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	1
<input type="checkbox"/> 교통부, 국적항공사 항공기 취득세 면제키로 .....	3
<input type="checkbox"/> 한·이스라엘 과기협정 타진 .....	4
<input type="checkbox"/> 한·중 항공회담 결과 .....	5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비상 위치지시용 장비 설치 의무화 .....	5
<input type="checkbox"/> 교통부, 항공정책심의회 발족 .....	6
<input type="checkbox"/> 국방부, 경전투헬기 사업변경 추진 .....	6
<input type="checkbox"/> 한국공항공단 옥상에 전망대 설치 .....	7

##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산업 육성전략수립 연구용역 체결 .....	8
<input type="checkbox"/> Eurocopter, Mr. Wissman 협회 내방 .....	10
<input type="checkbox"/> 삼성항공, 협력사에 30억원 지원 .....	10
<input type="checkbox"/> 삼성항공, 작년매출액의 11.4% 연구개발투자 .....	11
<input type="checkbox"/> (주)대우, 중국과 대형프로젝트 추진 .....	11
<input type="checkbox"/> 대한항공, 자체양성 조종사 24명 배출 .....	12
<input type="checkbox"/> 항공우주연구소, Sikorsky사와 양해각서 체결 .....	12
<input type="checkbox"/> 한라중공업, 가스터빈 설비 완료 .....	13
<input type="checkbox"/>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수요 마스터플랜 수립 .....	14
<input type="checkbox"/> 회원사 주소변경 .....	15

###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input type="checkbox"/> 희망전자, 항공기 관제용 레이더 국산화 .....	16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공중충돌 방지대책 시급 .....	16
<input type="checkbox"/> ‘우리별2호’ 기아나서 발사 .....	18
<input type="checkbox"/>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전 개최 .....	19
<input type="checkbox"/> 한·미 테크노마켓 첫회의 개막 .....	19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수입업체, 러시아산 헬기 수입포기 .....	20
<input type="checkbox"/> 국내 우주개발사업, 중국 우주기술연구원과 중복협약 .....	20
<input type="checkbox"/> 위성방송정책 재검토 불가피 .....	21
<input type="checkbox"/> F-16 차세대 주력기로 운용 .....	22

###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input type="checkbox"/> 미쓰비시중공업-Bombardier, 여객기 공동개발키로 .....	23
<input type="checkbox"/> Airbus사, 리비아와 항공기 판매 협상 .....	23
<input type="checkbox"/> EC, 항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24
<input type="checkbox"/> EC, 영공개방조치 일부 철회 권고 .....	25
<input type="checkbox"/> 독일 루프트한자항공, 2년내 민영화 추진 .....	25
<input type="checkbox"/> 루프트한자-유나이티드, 협력협정 체결 .....	26
<input type="checkbox"/> 일본 YSX 항공기 개발, 중국과 협력 합의 .....	27
<input type="checkbox"/> 일본 이토추상사, 국제항공기 리스 사업 강화 .....	27
<input type="checkbox"/> 일본위성시스템사, 통신위성 주문 .....	28
<input type="checkbox"/> 도시바, 방송위성 제작위해 미·불사와 합작 .....	28

####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input type="checkbox"/> 일본, 11개분야 對러시아 경협 약속 .....	29
<input type="checkbox"/> 91년 NWA기 화재, 기체 연료누출로 최종판결 .....	29
<input type="checkbox"/> 미-사우디 민간항공협정 서명 .....	30
<input type="checkbox"/>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력 증강 .....	31
<input type="checkbox"/> 중국-대만 합작 항공회사 설립 .....	31
<input type="checkbox"/> 미국운송안전위원회(NTSB), B757/767 조종장치 수정 권유 .....	32
<input type="checkbox"/> 태국, 타이국제항공 국내선 민영화 계획 .....	32
<input type="checkbox"/> 태국, 방공망사업에 웨스팅하우스 선정 .....	33
<input type="checkbox"/> 대만 포모사항공-스웨덴 SAAB사 항공기정비센터 설치 합의 .....	33
<input type="checkbox"/> 대만 TAC, BAe와 여객기 공동개발 포기가능성 .....	33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Dassault항공사, 대만에 기술이전 제의 .....	34
<input type="checkbox"/>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사고 80%가 사람의 실수” 확인 .....	35
<input type="checkbox"/> 폴란드, Skorpion 공격기 개발계획 .....	36
<input type="checkbox"/> 미 국방부, C-141 수명연장제의 거부 .....	36
<input type="checkbox"/> Loral社, 인공위성 5기 발사계약 체결 .....	37
<input type="checkbox"/> 미국, 해군·공군 겸용 초동훈련비행장치 계획 연기 .....	37

#### V. 회원사 소개

<input type="checkbox"/> (주) 서울엔지니어링 .....	38
--	----

## I. 정부관련시책

### □ '94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 정부는 '94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3.7% 증가한 43조2500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기업지원에 2조999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에 6조772억원, 과학기술진흥사업에 1조1379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함
- 정부는 9월23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
-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6조772억원을 책정하여 공업단지개발에 934억원, 항만개발에 4261억원, 도로확충에 2조8396억원을 투입키로 하였으며
- 중소기업지원에 2조999억원을 책정하여 신용보증확충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지원에 1조1433억원, 구조조정지원사업에 4721억원, 해외시장개척 및 대외경제협력 지원사업에 484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음
- 과학기술진흥사업에 1조1379억원을 책정하여 첨단및 산업기술개발지원에 3025억원을 지원, 특정연구개발비, 공업기반기술개발비등 국가주도 연구개발자금을 대폭 확충키로 함
-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업발전기금을 1420억원으로 확충하고 G7프로젝트 민간대응자금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500억원을 지원키로 함
- 이와같은 정부예산안을 볼때 내년전체 예산증가율이 13.7%인데 반해 중소기업지원이 90.8%, 과학기술지원사업이 32.1%의 증가율을 보여 이 부분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공업기반기술개발비로 책정된 1444억원은 G7프로젝트등 첨단기술과 산업현장 수요기술의 중점개발을 위해 활용되는데 G7프로젝트 개발비에 472억원을 책정

하여 항공우주개발에 170억원(45억원은 항공우주연구소 설비지원), 첨단산업시스템 개발에 144억원,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에 60억원, 환경관련 23억원등을 지원키로 함

과학기술부문 지원방안

(단위 : 억원)

구 분	'93예산	'94예산	증 감	%	주 요 내 역
연구개발	1,950	3,025	1,075	55.1	
-특정연구개발비	1,030	1,461	431	41.8	
※G7프로젝트	680	1,199	519	76.3	항공우주기술 신규 지원 170억원 (개발비 125억원, 시험설비비 45억원)
-공업기반기술	900	1,444	544	60.4	산업현장기술개발 지원
-에너지·환경기술개발	20	120	100	500.0	
국립연구소 및 출연연구기관 지원	4,236	5,054	818	19.3	
-국립연구소	1,296	1,565	269	20.8	공업기술원, 환경연구원등
-출연연구기관	2,940	3,489	549	18.7	KIST등 25개 기관
기초과학·인력양성	1,132	1,230	98	8.7	
-광주과기원 설립	122	240	118	96.7	'95.3월 개교대비 지원
-기초과학연구	740	570	△170	△23.0	우수연구집단, 목적기초연구 (기금제외시 29.5% 증)
-학술연구조성비	270	400	130	48.1	
-브레인 풀	-	20	20	-	
연구지원 등	1,298	2,070	772	59.5	
-공업발전기금	840	1,420	580	69.0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개 발자금등
-과학기술진흥기금	200	500	300	150.0	G7프로젝트 민간대응자금
합 계	8,616	11,379	2,763		32.1% 증

## □ 교통부, 국적항공사 항공기 취득세 면제키로

- 정부는 세계 항공시장의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항공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이들이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함
- 항공기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95년부터 현재보다 두배로 늘어나게 돼 항공운수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국적항공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음
- 사업용 항공기는 그동안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90년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92년까지는 면세 △93~94년은 50% 감면 △95년부터는 2%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고 재산세도 94년까지는 50% 감면혜택을 받게 되나 95년부터는 0.3%의 기본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추가부담액은 △93년 1백25억원 △94년 1백19억원 △95년 3백31억원 △96년 3백65억원 등 오는 99년까지 모두 2천1백30억원(연평균 3백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음
- 교통부는 양 항공사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상황으로 보아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
-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홍콩 등 인근 국가외에 프랑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또 홍콩·싱가폴 등은 항공기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미국 프랑스 등은 감가상각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으며 특별상각제도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B747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인 반면 미국은 7년, 프랑스는 5년으로 차이가 있음

## □ 한·이스라엘 과기협정 타진

- 한국과 이스라엘간 과학기술장관회담이 처음으로 열려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독일의 기계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한·독 기계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될 예정
-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9월 28일(현지시간) 한국 각료로서는 처음 이스라엘을 공식방문, 슈라미트 알로니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과학기술 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
-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검토중인 한·이스라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와 협력사업 및 방안을 모색키 위한 대화창구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설치문제가 중점 협의되었으며 이스라엘측의 강점기술인 생명과학, 우주항공, 신소재, 전자과학, 레이저 및 기초과학분야 등에서 양국 관련기관간 공동연구개발,공동워크숍 및 세미나개최,인력 및 정보교류 등의 방안도 논의되었음
- 김장관은 9월30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와이즈만 연구소와 항공산업체를 방문, 국내 연구기관 및 업체와의 공동연구방안을 협의하여 공동연구과제로 항공기부품의 정밀접합제조기술외에 △자동차용 IR센싱시스템△잉크젯프린터용 세라믹 트랜스듀서△성장인자 수용체와 신호전달단백질간 상호작용 △박막화기술 등을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함
- 한편 한·이스라엘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의 홍재학소장은 지난 9월28일 이스라엘항공산업사(IAI)에서 IAI의 M·케레트 사장과 양측이 항공우주기술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항공우주 기술 협력각서를 체결
- 이에따라 양측은 무인항공기개발기술을 비롯 설계, 분석, 항공기엔진조립, 성능 실험기술, 시뮬레이션기술 등에 협력하게 됨



## □ 한·중 항공회담 결과

- 韓中 양국은 10월 6일 서울에서 제4차 항공회담을 개최, 핵심쟁점이었던 관제 이양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복수항공사취항, 운항횟수, 운항지점등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타결에 실패함
- 정부는 이에따라 駐中 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아직 타결짓지 못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계속 협의키로 함
- 韓中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울-북경노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동경 124도를 관제이양점으로 하고 서울-상해 등 남방노선은 결렬상태임을 인정하자는 우리측 수정안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그동안 ICAO가 정한 동경124도는 자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인 60년대에 대만이 합의해 준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이번에 입장을 바꾸어 우리측안을 수용키로 한것
- 유병우 외무부아주국장은 이와관련 “관제이양점 문제와 세부사항을 다루는 양해각서 부분을 일괄타결키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아무것도 타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10월28일 한승주 외무장관 방중때까지 최종 타결 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함

## □ 항공기 비상 위치지시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정부는 지난 9월9일 황인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항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항공기 사고 발생시 사고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등의 특수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 개정안은 특히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관련 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고 항공기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항공사고 조사반을 구성토록 규정

## □ 교통부, 항공정책심의회 발족

- 교통부는 항공정책심의회를 발족하고 9월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
- 구본령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정책심의회는 관련부처 국장급 8명과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영선 연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교통개발연구원 이영혁 박사 등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음
- 항공정책심의회는 앞으로 공항개발기본계획,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 항공운송사업진흥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됨

## □ 국방부, 경전투헬기 사업변경 추진

- 국방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기종을 면허생산키로 했던 경전투헬기(KLH)사업계획을 외국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방침
- 10월 중순까지 면허생산키로 했던 경전투기헬기사업을 공동개발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바꿔 내라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대우중공업은 9월 24일 대전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경전투헬기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9월 25일 창원에서 사내 대책회의를 가짐
- Bell Helicopter사는 최근 국방부에 OH-58D헬기 판매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해외파트너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외개발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국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는 아직까지 경전투헬기의 공동개발을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군내부에서는 경전투헬기 공동개발에 7~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긴급수요물량으로 30여대의 경전투헬기 직구매를 요청했으나 국산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우선시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직접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방부가 긴급수요물량에 대한 면허생산도 생산물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긴급수요물량을 자사에서 생산해온 500MD헬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벨사는 국방부의 경전투헬기 긴급수요물량 30여대의 판매계획서를 지난 7월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해외공동개발업체로 벨사등 제3의 업체가 선정될 경우 유로콥터도이치사, 아구스타사 등 면허생산 해외 파트너로 지정됐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됨

## □ 한국공항공단 옥상에 전망대 설치

- 한국공항공단은 공항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공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공단청사 옥상에 항공기 계류장 및 주활주로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 운영할 방침
- 공항공단에 따르면 국내선 청사와 맞붙어 있는 현 공단 청사 옥상에 단면적 30여평 규모의 전망대와 1백평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공항이용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는 것임
- 한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공항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전망대가 문을 열면 항공기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하며 그러나 “공항 전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항정보기관의 보안성 검토는 물론 교통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공항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보안문제’가 걸림돌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 문민정부도 출범한만큼 관계기관에서도 그같은 경직된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 항공기산업 육성전략수립 연구용역 체결

- 협회는 2000년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국내 항공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 용역금액은 3천5백만원이며 기간은 '93.9.27부터 '94.1.25까지 4개월간임
- 주요 연구과제는
  -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 수준을 2000년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시 부품산업을 포함한 현 생산체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민수·군수용 항공기의 현 생산체제 적정성 결여시 실현가능한 생산체제 방안 도출
  - 항공기산업 선진국의 항공기 최종 조립업체 조정사례 조사
  - 국내 항공기산업의 종합적인 전문화 및 계열화 방안 제시
  - '90년 7월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6개 항공기사업의 현 생산체제 유지의 적정성 여부
  - 항공기 소재 및 연관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이며
-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용역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의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 세계 항공기산업의 구조변화와 산업조직
    - 세계 항공기산업의 구조분석과 전망
    - 항공기산업의 시장구조와 주요국의 최종조립업체 분석
  -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평가
    - 수급구조
    -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투자
    - 보유시설 및 생산능력
    - 인력구조
    - 경쟁력 평가
  -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산업조직 분석
    - 항공기산업의 산업조직 특성과 산업체계 확립의 중요성
    - 발전과정
    - 군항공기사업에 대한 평가
    - 산업조직상의 문제점
  - 항공기산업 발전비전과 전문화 및 계열화방안
    - 발전비전
    - 전문화방안
    - 계열화방안
    - 발전비전에 따른 개별 생산업체의 효율성 평가
    - 항공기 부품·소재업체 육성 및 지원방안
  - 결 론
- 협회에서는 동 연구용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수행기간중 약2회에 걸쳐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후 상공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임

## □ Eurocopter, Mr. Wissman 협회 내방

유로콥터 인터내셔널의 Mr. Wissman (Program Manager: 사업담당업무)과 김철(Mr Loges) 한국지사장은 10월 13일 협회를 방문 한국의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협회의 현황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향후 항공산업분야 협력 증진 방안등을 논의하였음

## □ 삼성항공, 협력사에 30억원 지원

- 삼성항공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금지원제도를 마련, 30억원을 11월부터 지원한다고 10월 6일 발표
- 생산성향상설비증설 등과 관련된 시설투자자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으로 연리 6%에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며, 기술개발 자금은 최고 1억원에 50%는 무상으로, 나머지는 개발완료일로부터 연리 4%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획기적 조건으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해 무상 자금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 삼성항공은 10월 9일까지 협력업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11월초에 최종업체를 선정해 자금지원에 들어갈 방침인데 대상 중소기업은 삼성항공 협력업체협의회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으로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
-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협력업체의 기술향상과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려 기술계열화를 강화키로 함

## □ 삼성항공, 작년 매출액의 11.4% 연구개발투자

- 한국신용평가사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473개 성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삼성항공은 지난해 전체 성장기업 가운데 연구개발투자부문 1위로 조사됐다고 9월 24일 밝혔다
- 보고에 의하면 상장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투자액은 매출액대비 0.83%에 불과했으나 자사는 11.4%로 조사됐으며 또 삼성항공의 올해 연구개발 투자액이 8백60억원으로 작년보다 90억원이 늘어날 것

## □ (주)대우, 중국과 대형프로젝트 추진

- (주)대우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항천공업총공사와 TDX, 인공위성, 반도체, 특장차, 산업용로봇, 자동제어시스템, 부동산개발 및 이동통신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
- 유기범 사장은 10월1일 힐튼호텔에서 항천공업부총경리와 이같이 합의하고 양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합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동기술 조사단 및 실사팀을 구성키로 하고 TDX프로젝트의 경우 북경시내에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키로 했음
- 항천공업은 27만명의 근로자중 10만명이 엔지니어이며, 항공·전자·자동차·컴퓨터 석유화학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 이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인데 현재 전세계 50여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중국내 100여개, 해외에 수십개 합작기업을 운영중
- 대우는 이번 합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 위해 금년내에 본사에 중국프로젝트 담당요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 6개 중국지사외에 서안, 훈춘, 하얼빈, 장춘, 무한, 중경 등에 추가적으로 지사를 설치키로 함

## □ 대한항공, 자체양성 조종사 24명 배출

- 국내 민항이 극심한 조종사·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월24일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에서 항공사 자체 양성 민항조종사 24명이 배출돼 관심
- 총 3백시간 이상의 비행훈련과 89시간의 모의비행훈련, 1200시간에 달하는 항공학술교육 등을 통해 이들은 항공특수급 무선통신사 면장, 자가용 조종사 면장, FAA사업용 계기비행 육상다발 조종면장을 취득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인천에 위치한 대한항공 운항훈련원에서 부조종사 훈련까지 모두 마치면 민항기 부기장으로 정식 입문하게 됨
- 이번에 배출된 민항조종사를 포함해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 출신 민항조종사는 모두 1백47명으로 이중 현역 주조종사는 B727 11명, MD-82 19명, F-100 8명, F-28 4명 등 모두 42명
- 운항훈련원에서 부조종사 교육과정에 있는 조종사는 105명
- 89년 1월 개원한 대한항공 기초비행 훈련원은 현재 18대의 훈련기와 시뮬레이터 4대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1백53명의 조종학생을 교육중임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 Sikorsky사와 양해각서 체결

-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 그룹의 계열사인 Sikorsky사와 항공기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한국내 홍보 대행사인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Sikorsky는 항공산업분야 기술협력 공동연구 프로그램수행 등을 내용으로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소 관계자들이 조만간 미 Sikorsky 본사를 방문키로 한 것으로 전해짐



## □ 한라중공업, 가스터빈 설비 완료

- 한라중공업이 다양한 용량의 가스터빈 제작 설비를 완료, 국내외 본격적인 공급에 나서기 위한 준비 체제를 구축
- 한라중공업은 10월 7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자사 발전설비사업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기술세미나에서 현재 충북 음성외의 소이공장에서 2MW급 소형에서 220MW급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량의 가스터빈 제작설비를 완료했다고 밝힘
- 한라중공업은 지난해 독일의 지멘스사와 60MW~220MW급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 대한 기술제휴에 이어 93년 3월 이탈리아 누오보 삐네사로부터 2MW~10MW급 중소형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 까지 전용량에 걸쳐 가스터빈 생산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가스터빈 발전설비는 경제성이 아주 높은 고효율 에너지절약 산업설비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등 해외에서도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수요 마스터플랜 수립

-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조종요원의 장기적·안정적 수급을 위해 조종사 자체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훈련생 모집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
-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부족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전제아래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을 「전환기」로 삼아 90년이후 지금까지 30% 수준에 불과하던 자체양성 조종훈련생 모집선발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 98년부터는 대부분의 조종사를 자체양성 조종사로 충원, 80%까지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군 경력자의 충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아시아나는 「조종사 자체 양성 계획(ABINITIO)」에 의거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90년7월 자체 양성 조종훈련생 1기생 20명을 선발 양성해 온 이래 91년 12명, 92년 3명, 93년 상반기 19명 등 총 54명을 교육과정에서 투입시켜 23명의 부기장을 배출하였음
- 이번 아시아나의 조종사 수급 마스터플랜은 군출신 경력자나 외국조종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조종사 수급시스템에서의 탈피를 선언 한 것으로, 군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력조종사(Ready-Made)의 경우 교육비가 적게 들고 전환훈련만 받으면 운항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사 평균연령이 35~40세로 근무 가용기간이 짧고 비교적 임무 수행의식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아시아나항공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미국의 조종사양성 전문기관인 「Flight Safety International」에서 해외위탁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자가용·산업용 항공기 면장을 비롯, 무선통신·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고 제트전환 민항공기 교육 이수한 후 아시아나 정식 조종요원으로 합류하여 「아시아나 운항훈련원」에서 부기장 기본 교육 및 초기과정 부기장 교육과정을 거친 후 항공법에 준하는 한정면장을 취득하여 근무하게 됨
- 현재 아시아나의 조종사는 기장 1백55명, 부기장 1백51명, 조종훈련생 47명 등 총 3백53명이며 이중 외국인 조종사는 68명임

□ 회원사 주소변경

◇ 오리엔탈공업(주)

주 소 서초구 양재동 209-4  
전 화 02 574-1460  
FAX 02-575-8458

◇ 신라상사

주 소 대구직할시 동구 각산동 291-1  
전 화 053-963-1114 , 1232~4  
FAX 053-963-2066

◇ 삼미종합특수강(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4  
전 화 02-222-4569  
FAX 02-563-1291/2

◇ 서울차체공업(주)

주 소 창원시 차용단지 10-3번지  
전 화 0551-51-4501  
FAX 0551-97-2005

### Ⅲ. 국내 항공우주산업동향

#### □ 희망전자, 항공기 관제용 레이더 국산화

- 희망전자개발은 관제사들이 항공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해 활용하는 항공기 관제용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 시제품 제작까지 마쳤다고 밝힘
- 동사는 지난 2년간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자금 2억3천만원을 지원 받아 개발한 이 레이더시스템은 송수신장비만 외제를 사용하고 익스트랙터 시스템제어용 S/W, 레이더정보처리용 S/W 등은 자체 개발된 것
- PSR(1차 감시레이더)와 SSR(2차 감시레이더) 등 2개의 레이더 송수신장비를 통해 들어온 전파신호를 디지털정보로 바꿔주는 익스트랙터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인데 익스트랙터를 거친 정보는 DSP(디지털 신호처리장치)를 통해 종합되며 동시에 컴퓨터모니터상의 화면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처리됨
-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이 레이더 안테나를 기준으로 반경 60NM(1NM=1.8km) 범위 안에 있는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최대 2백56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외제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아 민간항공기 관제용 레이더시스템으로 뿐만 아니라 훈련용 시뮬레이터 레이더, 군요격 관제 레이더, 군착륙 관제레이더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 항공기 공중충돌 방지대책 시급

- 초대형 참사를 빚을 수 있는 항공기간의 일명「스치기」가 우리나라 공역에서 매년 10여건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비행제한구역 완화등 근본적인 공중충돌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스치기」는 비행중인 항공기들이 안전을 위해 최소한 1k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100~500m 까지 근접, 조종사가 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요행히 충돌을 모면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약상 사고로 취급됨

-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스치기는 군전용공역외의 제한된 항로를 운항하는 민항기와 군용기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 항공사들은 ICAO에 대한 사고발생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통부등 관계당국도 관련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음
-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내 항로폭은 10마일(약18km)로 제한돼 있는데 대부분의 공역이 군작전비행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민항기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는 실정, 대구 중앙관제국이 군 통제하에 있어 군용기가 훈련중인 시간에는 민간항공기가 선회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군용기들은 대부분 육안식별비행을 하기 때문에 민항기와의 스치기 사고를 낳고 있음
- 지난 91년 8월 유나이티드항공소속 민항기와 공군전투기간에 스치기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경남 울산 상공에서 아시아나 여객기와 대한항공 훈련기간 충돌위기가 있었고 또 지난 2월에는 대구 중앙관제국의 레이더가 마비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중이던 10여대의 민항기가 사고위기를 맞기도 했음
- TCASⅡ는 항공기주변에 일정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 다른 항공기가 이 구역을 침범하면 계기판에 황색으로 위치가 표시되면서 경고음이 울리다가 충돌위험이 있는 지점까지 접근하면 항공기 위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음성신호를 보내는 첨단 장비지만 항공기에 이같은 장비가 장착된다 하더라도 군당국이 관할하고 있는 중앙관제시스템이 교통부로 이관이 늦어지고 「좁은 국토에 넓은 비행금지구역, 좁은 항로」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한 스치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가들의 지적임
- 서울지방항공청의 한관계자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막으려면 비행금지 구역과 군전용공역을 대폭 완화, 기존항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함

## □ ‘우리별2호’ 기아나서 발사

- 국내 기술에 의해 설계 제작된 ‘우리별2호’ 과학위성이 9월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기지에서 아리안 로켓에 실려 발사
- 아리안 로켓에는 주위성인 프랑스의 기상관측위성 Spot3호와 ‘우리별2호’를 비롯,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인공위성 등 모두 7기의 위성이 탑재
- ‘우리별2호’는 29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92년 10월부터 93년 6월까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에서 제작됐으며 가로 35.2cm, 세로 35.6cm, 높이 67cm에 무게 50kg의 소형 과학위성으로 수명은 5년
- 천연색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2대, 위성용 32비트컴퓨터, 입자검출기, 적외선 감지기, 통신장비 등 각종 실험장비가 탑재돼 있는 ‘우리별2호’는 지상 8백 20km의 태양동기 궤도에서 1백1분에 한번씩 지구를 돌면서 지상관측 및 통신 실험 등을 하게 되는데 당초 9월 1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주위성인 Spot3호의 고장으로 발사가 3주 이상 연기돼왔음
- ‘우리별2호’는 ‘우리별1호’의 운영중에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국산품을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제작된 것으로 전체 1만2천 1백65개 부품중 국내기업이 제작한 반도체 기억소자, 트랜지스터 등 8백27개 국산부품이 사용됨
- 아리안 로켓은 유럽우주기구(ESA)회원국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아리안 스페이스사가 개발 제작한 발사체인데 아리안 스페이스사는 지난 81년부터 인공위성 상업발사를 시작해 지난 13년간 모두 58회를 발사했고 이번이 59번째임

## □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전 개최

-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는 9.21~23일 제9회 항공우주전을 개최
- 동 전시회에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설계 제작한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등 항공기류 6점과 항공기 조작 실습용 S/W 및 H/W 등이 전시

## □ 한·미 테크노마켓 첫회의 개막

-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테크노마켓 1차 회의가 양국의 1백50여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4일 서울 웨라튼 위커힐호텔에서 개막
- 이 행사는 92년 1월 양국 대통령간에 체결된 「한·미 영업환경개선」(PEI)과 지난 5월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한·미 산업기술협력 추진계획에 따라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을 결합해 양국기업간의 장기적인 산업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기술협력모임
- 이를 공동주최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산업기술정보원(KINITI) 및 미국의 국제기술 평가사는 행사기간중 양국기업간 바람직한 기술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첨단기술이전 상담회를 열었음
- 정보통신과 컴퓨터·신소재 분야 첨단기술의 대한 이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그마디자인과 실리콘디자인 툴스 등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첨단기술업체 33개사와 삼성, 현대, 대우등 1백20여 국내기업들은 기술이전 상담회를 갖고 전자·신소재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을 상업화하기위한 방안을 협의
- 한·미 양국의 관련기관들은 올해 처음 시작된 한·미테크노마켓을 양국 기업간 산업협력을 구체화시키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교대로 정례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무공과 KINITI는 미국에서 개최키로 한 내년 행사기간중 기계·항공·의료기기·신소재분야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임

## □ 항공기 수입업체, 러시아산 헬기 수입포기

- 러시아산 헬기의 수입을 추진해왔던 국내업체들이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3국으로의 중계수출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산림청이 렉키금성사를 통해 러시아산 KA-32기종의 헬기를 도입키로 하자 이 기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허가됐으나 그동안 수입 추진돼왔던 MI-8, 17기종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어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 의해 불허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들은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불가능하다는 재답신을 받고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중 성진통상의 경우, 러시아 헬기를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와 일본에 중개수출한다는 계획아래 현지 관계자들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관계자는 「베트남 등은 최근 경제개발계획으로 건설수요가 많아 민간수송요이나 화물수송용으로 헬기 수요가 많다」고 함
- 한편 대우중공업은 러시아와 기술제휴, 완제품 수입이 불허된 MI-17기종을 국내 안보상 문제가 없도록 개조, 직접 생산할 예정인데 동사는 창원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MI-17기종을 생산,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임

## □ 국내 우주개발사업, 중국 우주기술연구원과 중복협약

- 인공위성개발 등 우주개발분야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창구일원화 방침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중국의 1개 우주기술연구기관과 공동개발 협약을 중복체결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음
- 9월 16일 관계당국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의 인공위성, 과학로켓 개발 등의 협력은 항공우주연구소를 공식채널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단독으로 중국에서 중국 공간기술연구원과 다목적 소형위성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음

- 또 지난 6월중 방한했던 공간기술연구원은 한국측 창구로 내정된 항공우주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도 통신위성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의 공간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한 셈이 됨
- 정부는 지난 7월1일 과기처장관과 중국항천공업총공사 총경리(장관급)가 배석한 가운데 과기처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소와 중국공간기술연구원사이의 한·중 우주기술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토록 해 이 두 연구소가 공식적인 한·중 우주기술협력을 위한 창구가 되도록 했다.

## □ 위성방송정책 재검토 불가피

- 95년 실시예정이던 직접위성방송(DBS)도입이 차기정권(98년이후)으로 늦춰짐에 따라 정부의 위성방송정책 난맥상이 노출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방송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 DBS실시 연기는 단순방송 채널의 수가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어 엄청난 비용을 들여 95년 발사할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를 통신기능만을 수행하는 가치절반의 위성으로 전락시키는 셈이 되었음
- 무궁화호의 트랜스폰더는 모두 9개로 이 가운데 3개가 DBS용인데 나머지에도 비디오 중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방송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궁화호의 수명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무궁화호는 방송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공보처의 DBS의 연기 이유는 DBS를 맡을 기존 공중파 방송이 이 사업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 즉 기존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질향상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적 여유가 없어서 프로그램 확보 자체가 어렵고

- 투자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신문사는 법적으로 참여가 금지돼 있다는 지적
- 한편 무궁화호에서 DBS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개의 트랜스폰더는 케이블 TV프로공급용으로 활용, 전국 운영국에 프로그램을 동시에 배급하는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F-16 차세대 주력기로 운용

- 김영삼 대통령은 9월 25일 「F-16전투기는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데 필요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주력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F-16을 차세대 전투기로 운용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 김대통령은 중부지역 공군부대를 순시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F-16을 주력비행기로 운용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F-16과 F-18의 기종 선택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F-18과 F-16의 성능과 작전운용, 가격 등 제반 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F-16이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로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함
- 김대통령을 맞은 공군부대의 부대장도 「이 전투기는 90km이내의 적 항공기를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으며 AIM 유도탄으로 14 km 거리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북한 최신예기인 MIG29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고함

##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 미쓰비시중공업-Bombardier, 여객기 공동개발키로

-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캐나다의 Bombardier사가 개발중인 장거리 여객기용 날개 및 중앙동체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
- Bombardier는 캐나다항공이 96년 말부터 개설할 「Global Express」용 장거리여객기 개발 및 생산 협력업체로 영국의 Rolls Royce(동력장치)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을 선정되어 사업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여객기 날개의 설계·생산 및 조립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힘
- 미쓰비시중공업은 조만간 나고야 항공시스템 기술진을 캐나다항공의 몬트리올 본사에 파견, 여객기 날개 상세설계에 참여 시킬 예정으로

### □ Airbus사, 리비아와 항공기 판매 협상

- Airbus 항공기 제작사는 9월 22일 리비아 아랍항공에 제트 항공기 판매와 비공식 논의를 해왔다고 발표
- 유엔의 무기거래 및 항공운항 제재를 받고 있는 리비아가 Airbus사로부터 25대의 항공기를 구입키 위해 협상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Airbus 대변인은 “우리는 논의와 토론을 해왔으나 협상이라 칭할만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항공기 판매를 위해 리비아와 접촉했음을 시인하고 Airbus사는 항공기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될 경우에 한해 항공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
-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정부가 지난 88년 펜암항공사 여객기를 폭파해 승객 2백70명이 사망한 테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2명의 용의자를 국제법정에 인도하고 1백71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89년 프랑스 UTA항공 여객기 폭발사건의 수사를 협조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리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리비아와의 항공운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음

## □ 가와사키중공업, RE200 보조동력장치 공동개발계획

- 가와사키중공업은 미국의 Allied Signal, 독일-영국 합작기업인 BMW-Rolls Royce, 이탈리아의 알파 로미오 에이비오 등과 보조동력장치 「RE200」을 공동 개발하여 95년 5월부터 공동생산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
- 이 프로젝트는 총 50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인데 가와사키는 이 가운데 15%의 자금을 분담하고 보조동력장치의 기어박스를 생산할 예정
- 가와사키는 또 일본내에서「RE200」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방안과 미국의 Allied Signal과 다른 형태의 보조동력장치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 EC, 항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역내 항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 요금요금 및 고객할인서비스제도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카렐 반미에르트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0월8일 밝힘
- 그는 워싱턴의 국제항공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순수한 경쟁행위와 상대 경쟁사를 제약하고 해악을 가할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사에 대한 조사진행이나 특정 불만 접수 여부등에 대해서는 지목하지 않은 채 담합적인 가격인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발표
- EC집행위는 특히 합병항공사들의 상행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통합협력 협정을 심사할 때 고객할인서비스제도에 대한 제한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예정임

## □ EC, 영공개방조치 일부 철회 권고

- 유럽공동체 항공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EC 영공 개방 조치의 일부 철회를 권고 할 것 같다고 관련업계 분석가들이 9월 17일 발표
- 이들은 지난 9월 16일 끝난 이틀동안의 항공산업 청문회에서 전문가 집단은 항공사들이 수용능력 축소를 위해 서로 조정하도록 허가돼야 한다는 권고안을 거론했다고 전함
- 분석가들은 금년 1월1일부터 EC항공산업이 자유경쟁시대를 맞도록 한 영공 개방 조치가 무리이며 시기상조였다는 견해에 다소 동의
- EC항공사들은 1월1일부터 역내 거의 모든 항공로를 이용토록 허용한 EC의 영공개방협정을 앞두고 비행기를 구입하고 새 항로를 개설했다가 곧바로 들이닥친 불황으로 고전중이며
- 항공사들이 합의를 통해 수용능력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이번 방안은 청문회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의 알리탈리아 항공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항공사 등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흑자를 올리는 있는 영국 항공측은 항공사들이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 독일 루프트한자항공, 2년내 민영화 추진

- 독일의 마티아스 비스만 교통장관은 9월 24일 체결된 미국과의 새로운 잠정민간항공협정으로 루프트한자 항공의 민영화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비스만 장관은 벨트 암 존타크지와 회견에서 루프트한자의 민영화는 앞으로 2년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미국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혜택이

제거되고 공정한 경쟁조건이 마련돼 루프트한자는 북미 노선에서 수입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이번 협정에 따라 이 항공사는 90년대 중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민영화의 골격을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 동사는 올 상반기에 3억9500만마르크(2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가 개선됐다고 발표
- 동사는 자체적인 비용감소와 합리화 작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올 2/4분기에는 2천400만마르크의 흑자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

## □ 루프트한자-유나이티드, 협력협정 체결

-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사와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사는 10월4일 항로개방등 상호협력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
- 협정에 따라 양측은 각각 자사 승객들은 상대사의 동일 항공편에 연계해 상대국 목적지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 셰어링’이 가능해지고 상호간의 “고객할인 서비스제도”도 함께 실시하고 공항 등 지상시설물들도 공동으로 사용키로 함
- 지금까지 미국내 12개 도시에서 항공표를 판매해왔던 루프트한자는 이에 따라 오는 1월부터 시카고와 워싱턴 연계 각각 5개도시와 샌프란시스코 연계 1개도시 등 미국내 11개 도시들에서 추가적으로 항공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빈 등 유럽노선을 확장하게 된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독일의 쾰른, 뒤셀도르프, 하노버, 함부르크, 뮌헨 등 8개 도시의 루프트한자 사무실을 이용, 고객접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런던의 히드로공항과 베를린, 함부르크 및 뮌헨간의 노선에서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연계이용할 수 있게 됐음

## □ 일본 YSX 항공기 개발, 중국과 협력 합의

- 오는 2000년까지 소형 항공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 항공산업계는 중국과 항공기개발 및 생산을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시사통신이 9월 24일 보도
- 양국의 항공기 생산업체는 앞으로 일본의 YSX 75인승 비행기 생산계획에 중국의 참여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협력분야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며 가와이 이사부 후지중공업회장이 이끄는 일본기업인 중국방문단은 이번 방문기간 중 항공기 개발생산에 양국간의 합의를 성사시켰음
- 후지중공업은 YSX프로젝트의 주요협력업체로 유럽과 미국업체를 고려중에 있으며 중국의 참여에 따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음

## □ 일본 이토추상사, 국제항공기 리스 사업 강화

- 일본의 이토추상사는 아일랜드에 항공기리스사업 자회사를 설립, 국제적인 항공기리스사업을 강화
-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토추 에어리스유럽(본사 더블린)의 자본금은 5백만달러로 이토추상사가 전액 출자하였음
- 이에따라 동사 항공기리스의 거점은 일본의 이토추 에어리스, 미국의 이토추에어리스·인크와 합쳐서 미·일·구유럽에서 리스거점을 갖추게 되었음

## □ 일본위성시스템사, 통신위성 주문

- 일본위성시스템사는 일본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신용 위성을 주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월 18일 보도
- 이 회사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부터 만주에 이르는 지역을 서비스권에 두기 위해 미국의 휴즈통신사에 2백30억엔(2억7천만달러)짜리 위성을 주문했는데 이 위성은 오는 95년 8월에 10월부터 가동함
- 일본위성시스템사의 통신위성주문은 일본 정부가 위성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데 뒤이은 것으로서 일본 위성시스템사는 지난 8월 2개의 위성통신회사가 합병해 설립됐으며 이토추, 미쓰이, 스미모토, 닛쇼이와이 등의 종합상사와 휴즈통신이 소유주로 돼 있음

## □ 도시바, 방송위성 제작위해 미·불사와 합작

- 일본의 도시바사는 차세대 BS4 방송위성 제작을 위해 미국의 스페이스 시스템스 로털 (SSL) 및 프랑스의 Aerospatiale사와 제휴했다고 10월7일 발표
- BS4 방송위성은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출자, 설립한 방송위성 시스템사가 운영하게 되는데 도시바의 대변인은 이 위성의 제작비가 1백억엔으로 예상되며 밝히고 SSL이 주계약자가 되고 도시바는 신뢰도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이 대변인은 3개사가 오는 10월 18일의 시한을 앞두고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전함



## □ 일본, 11개분야 對러시아 경협 약속

- 일본은 러시아와 원자력 발전, 수송 및 장거리 통신 등 11개 경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 시장경제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키로 했다고 10월 6일 공동통신이 보도
- 이 통신이 입수한“무역,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전망”이라고 명명된 일-러시아 경제 선언에 따르면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무역 및 경제 관계를 확대 개발키로 합의, 러시아의 민주 및 시장개혁 방향을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임
-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을 방문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 종료후 발표된 이 선언을 통해 일본은 에너지, 강철, 임업, 원자력발전, 수송 및 장거리통신, 재정운영방법, 우주산업, 농업, 어업, 의학, 환경 등 11개 경제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민영화 방안을 지원키로 합의
- 이 선언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가입이 성사된 후 러시아의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가입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 91년 NWA기 화재, 기체 연료누출로 최종판결

- 지난 91년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발생한 미 노스웨스트항공(NWA)소속 B747-400 점보 여객기의 화재사고는 기체의 엔진 연료 파이프와 전기 케이블과의 마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일본 정부의 한 조사보고서가 9월 25일 발표
-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가 일 운수성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승객과 승무원 모두 3백 15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의 화재는 여객기의 제 2엔진에 있는 전기선과 연료 파이프가 서로 비벼대면서 마찰로 인해 일어난 전기 스파크가 원인으로 규명됐다고 말했는데 이 위원회의 조사담당자인 나카쓰지 요시

로씨는 화재는 연료 파이프의 덮개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 연료가 새어나오면서 일어났다고 말함

- 이 여객기는 지난 91년 9월 19일 나리타공항에서 뉴욕을 향해 이륙한 직후 기내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 이 공항에 다시 비상 착륙했으며 이 여객기의 탑승객 가운데 46명은 탈출하려다가 부상했을 뿐 실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 □ 미-사우디 민간항공협정 서명

- 10월2일 사우디 국방·항공차관보인 타드 빈 압둘라 알 사우드 왕자와 페데리코 페나 미 교통장관이 사우디 항구도시 지다에서 지난 90년 1월 합의한 양국간의 민간 항공 협정에 서명했다고 국영 사우디 통신(SPA)이 보도
- 부속조항 4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협정은 교통권, 양국 국적기 항공사 지정, 국내외 관련 법률과 규정, 항공안전, 공항사용 및 호혜적인 관세면제조치 등을 다루고 있으며
-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국적기 항공사는 서로 매주 여객기 8회 및 화물기 6회씩을 운항할 수 있게 됨
- SPA는 페나 장관이 이날 파드 사우디 국왕을 만나 이번 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나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에트연합등 3개국을 순방중인 페나장관은 사우디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60억달러 규모의 미제 상업용 제트기 판매를 주선하고 있다고 전해짐

## □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력 증강

-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공군력과 민간항공편을 증강시키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사우디시장 진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Boeing사와 맥도널더글라스사를 비롯, Airbus Industries 등은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쇼를 계기로 사우디측과 항공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측은 내달 11월7일-11일간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사우디의 고위급 군 및 민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주요 항공기 생산업체들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함
-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쇼 책임자인 버지니아 케른씨는 국제항공회사들이 벌써부터 사우디의 항공기 현대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두바이 에어쇼에 참여하는 4백 50개의 회사들이 사우디 정부의 기류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사우디는 자국 항공에 6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 석유수입 및 해외자산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0년까지 전투기와 헬기 등 첨단 무기 수입에 1백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 중국-대만 합작 항공회사 설립

- 대만은 중국과의 직항에 대비해 중국과 합작으로 홍콩에 항공사를 설립할 계획
- 중국과 대만의 민간항공사들이 홍콩에 합작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만의 정책 당국자가 제의했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대만의 민간항공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명의로 중국의 민간항공회사와 홍콩에 합작항공사를 설립해 1997년 이후 대만-홍콩 노선을 운영하는 것임

## □ 미국운송안전위원회(NTSB), B757/767 조종장치 수정 권유

- 美 운송안전위원회 (NTSB)는 지난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착륙중이던 B767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B757기와 767기의 자동조종장치 수정을 명령할 것을 미연방항공국(FAA)에 권고함
- NTSB는 10월 4일 FAA에 보낸 권고서에서 Boeing사와 Boeing기의 자동조종장치를 제작한 콜린스 에비에닉스社에 수정명령을 내릴것을 촉구했는데 Boeing사는 NTSB의 권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FAA와 검토완료 일정을 마련할 계획
- NTSB는 유나이티드항공 소속의 B767기 조종사가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지상에 닿으려 할 때”바퀴를 풀기 위한 자동조종장치 단추를 눌렀으나 방향타가 오동작을 하며 우측으로 16~17도 회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
- 한편 법적인 집행력을 갖지 않은 기구인 NTSB는 유나이티드항공의 자동조종장치가 명령받지 않은 행동을 한 사건이 2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 태국, 타이국제항공 국내선 민영화 계획

- 태국 국영 타이국제항공은 국내선 운항부문을 민간회사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이를 인수할 새 항공사의 초창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항공사의 탐눈 왕리 사장이 10월 6일 발표
- 탐눈사장은 타이국제항공이 그같은 계획의 예비보고서를 정부 감독기관인 운수체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타이국제항공이 새 국내선 항공사의 주식 30%를 차지할 계획이며 이 회사의 운영을 초창기의 3-5년간 지원 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 60년에 국제선 운항 항공사로 발족한 타이국제항공은 88년 4월 정부로부터 타이항공사와의 합병을 허가 받은 뒤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고 있음

## □ 태국, 방공망사업에 웨스팅하우스 선정

- 태국은 1억8천만달러 규모의 레이더 방공망 건설 계약자로 웨스팅하우스사를 선정했다고 방콕의 한 신문이 9월 23일 보도
-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계약에서 1억6천2백만달러를 제시했던 휴즈사와 경합을 벌였으며 레이더를 이용한 이 방공망은 방콕 서남쪽 5백30km에 있는 수라트 타니와 남부의 다른 세지역에 건설되는 각 시설들이 연결 구성되는 사업임

## □ 대만 포모사항공-스웨덴 SAAB사 항공기정비센터 설치 합의

- 대만의 포모사항공(FA)과 스웨덴의 SAAB인터내셔널 항공은 10월6일 대만을 보유한 SAAB제 항공기 정비를 위한 아-태 정비센터를 타이페이 공항 근처에 있는 FA의 기존 정비공장안에 설치키로 하는 협정서에 서명
- SAAB사는 이와관련, FA의 항공기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이전해주는 한편 5인 기술지원팀을 파견되는데 FA사의 한 관계자는 “2년안에 SAAB의 기술을 숙달케 될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면 아-태지역을 운항중인 SAAB제 304 항공기에 대해 완벽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FA사는 현재 SAAB제 304-A쌍발기 3대와 304-B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04-B기 4대를 추가주문, 내년 중반께 인도 받을 예정임

## □ 대만 TAC, BAe와 여객기 공동개발 포기가능성

- 치앙 핑 쿵 대만 경제장관은 10월 6일 대만항공사(TAC)는 British Aerospace 사(BAe)와의 5억6천6백만 달러 규모의 지역운항용 제트여객기(RJ) 공동개발사업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힘
- 치앙장관은 정부가 이같은 공동투자를 취소할 계획인가를 묻는 질문에 “TAC

가 오는 10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BAe사와 그에 관한 회담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5일 야당의원 2명은 치양장관의 말을 인용, 정부가 TAC와 BAe의 합작을 곧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치양장관은 합작이 취소되고 TAC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였음

- 대만 언론들은 또 TAC사가 맥도널 더글라스사와 합작계획을 취소한데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지만 치양장관은 BAe사와의 공동개발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TAC사가 앞으로 대만 항공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 대만 정부가 주식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항공기제작사와 British Aerospace는 지난 1월 75~115인승 RJ를 영국과 대만에서 생산하기 위해 주식 지분 50대50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가협정을 체결했으나 합작기업체의 설립은 자본금 불입과 기술 이전을 둘러싼 분쟁으로 여러달 동안 지연돼 왔으며 지난달 양국 회사는 합작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변경, 새 자본금으로 4억달러를 불입하기로 금융협정을 체결했으나 기술이전 협정체결에는 실패한 바 있음

## □ 프랑스 Dassault항공사, 대만에 기술이전 제의

-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BAe)와 대만우주항공사(TAC)간의 기술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프랑스의 Dassault항공사는 대만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
- Dassault항공사의 사르주 Dassault 회장은 대만의 중앙통신(CNA)과의 회견에서 "나는 국제민간항공기 협력 계획에 관한 한 어떤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다"며 만일 Dassault사가 대만기업과 항공기생산에 관한 합작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합작파트너에 기술을 이전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함

## □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사고 80%가 사람의 실수” 확인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10월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항공운항의 인간적 요인들에 관한 회의를 개최, 항공사고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사람에 의한 실수를 현격히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피에르 자니오 IATA사무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IATA가 항공치사율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사람에 의한 실수를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을 선언
- 그는 “인간 외적 원인을 50% 줄일 경우 전체 사고수가 10% 감소하지만 사람에 의한 사고원인을 50% 줄이면 총사고수의 40% 줄일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구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한 IATA의 집계에 의하면 연간 항공기이용객 12억명중 5백명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9대의 항공기가 사고로 파괴되었음
- 자니오 국장은 사고율이 지난 수년에 걸쳐 현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무사고를 지향해야 하는 항공산업에 있어서 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편 IATA관리들은 사람에 의한 실수로 조종실의 단추를 잘못 누르는 것에서부터 끝내 사고로 이어지는 잘못된 결정, 새 항공기 및 그 작동에 관한 조종사들의 훈련 부족 등을 들었다.
- 노먼 잭슨 IATA 기술담당국은 “조종석의 인적요인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정비, 기타 많은 다른 문제들도 사람에 의한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폴란드, Skorpion 공격기 개발계획

- 폴란드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PZL-230 Skorpion 쌍발 터보프롭 지상공격기의 개발여부를 '94년 중반까지 결정하게 될것임
- 만일 주정부 소유의 PZL-Okecie가 추진하는 동 계획이 취소될 경우, 경쟁사 PZL-Mielec는 I-22 Iryda-Jet 훈련기와 M-97등이 Skorpion 대체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식통에 의하면 현상태로는 Skorpion은 14%만이 국산화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동 계획에 Czech와 합작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외국에서 대부분의 개발과 원형기 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 미 국방부, C-141 수명연장제의 거부

- 미 국방부는 Lockheed가 건의한 현재운용중인 C-141/B Starlifter 247대의 수명연장사업에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바깥날개의 교체와 구조개량사업 등이 포함된 동 개조작업에는 44억5000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 공군은 C-141/B의 Outer Wing Pannel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한후 45대를 비행금지시키고 116대는 공중재급유시 탑재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공기는 평균탑재량의 74%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정 운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이와같은 개조사업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른 방안으로 Lockheed는 C-5의 재생산을 건의했으나 일찍이 무산되었음



## □ Loral社, 인공위성 5기 발사계약 체결

- Loral社는 Lockheed-Khrunichev-Energia International(LKEI)사와 러시아의 Proton 발사체를 사용하여 5기의 위성을 발사하는 계약을 체결
- 최초 발사는 '95년초에 실시되며 나머지는 96~98년 사이에 발사될 예정임
- 현재까지 러시아의 상용발사체 Proton을 이용하여 발사기로 한 것은 Inmarsat 위성 3기로 미국·유럽의 발사체보다 1000만\$가 저렴한 3600만\$임
- Loral은 11억\$ 규모의 통신위성, 환경탐사위성 20기의 발사주문을 받아놓고 있는데 LKEI사는 러시아의 Proton발사체의 서방 판매를 위해 93년1월 설립되었음

## □ 미국, 해군·공군 겸용 초등훈련비행장치 계획 연기

- 미국은 예산삭감으로 해군·공군 겸용 초등훈련비행장치(JPATS)의 생산계약 체결을 1년 연장 하였음
-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경쟁사들은 입찰을 위해 매월 100만\$를 소비하고 있어 JPATS의 사업자 선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1억7000만\$규모의 JPATS 계획은 95회계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96회계 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도 94년에서 95년으로 연기되었음

## V. 회원사 소개

### □ (주) 서울엔지니어링

#### ◇ 회사개요

-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대표 오세철)은 '68년11월 설립되어 현재 매출액 80억원, 종업원은 153명의 규모로 인천시 수출산업공단 6 단지에 위치하고 있음



- 동사는 '68년 설립이래 '73년 “비철금속 소재”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고, '78년에는 “알루미늄주물”로 군수업체 지정을 받았으며 '79년에는 “비행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주물”로 군수업체로 지정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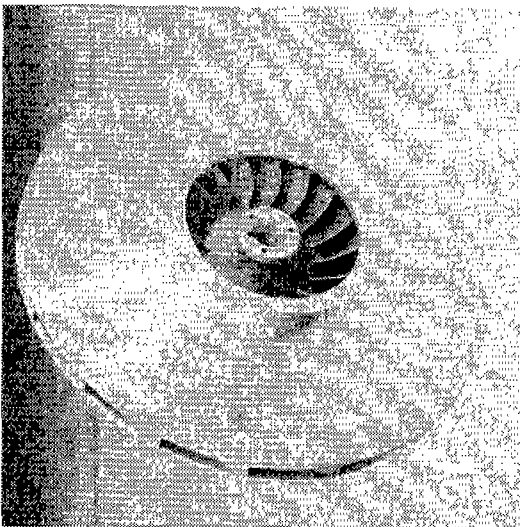
#### ◇ 설 비

- 주요 설비로는 Green Sand, Furan Sand, Co2 Sand, Centrifugal Casting, Plaster Casting, 저압주조를 포함한 금형주조 Line등의 주조 설비와 고주파 유도용해로, 연속식 가스 용해로등 용해시설과 각종 기계가공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 3차원 측정기, X-Ray 촬영기등 시험검사 설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설비는 89년 이후에 도입한 최신장비임

#### ◇ 사 업

- 동사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 설계 → 시제품 주조 → 중간검사 → 열처리 → 기계가공 → X-Ray 검사 】 등 모든 공정을 수행할 수 있음

-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자동차 엔진부품, 선박 엔진부품, 기계부품, 산업용 케이스등
- 최근에는 항공기용 고급 알루미늄 주조품과 마그네슘 주조품(미국 기술도입)을 개발하여 Bell Helicopter등에 공급계약을 체결 하였음
- 지난 4년간 막대한 설비투자를 하여 선진국의 동등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의 2개업체와 각각 18년, 5년간 기술제휴를 맺고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연간 200만\$의 수출액을 올리게 되었음
- 서울엔지니어링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87년에 대한금속학회 기술상, 91년 한국주조공학회 기술상, 92년. 공업진흥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등을 수상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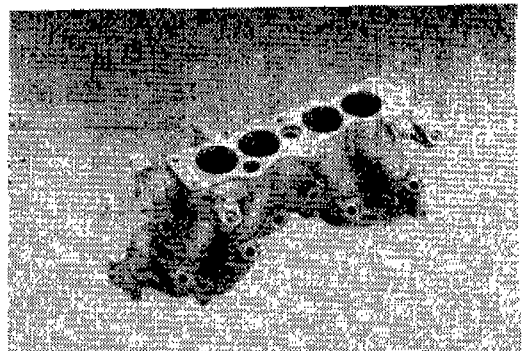


↑ Impeller

- 동사는 인재육성에 중점투자할 계획으로 품질관리 연구교육, 생산관리 연수교육과 해외기술 연수를 확대할 예정

- 93년 4월에는 고급기술인력을 한곳에 집결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념아래 소규모의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음

Intake Manifold →



※ 본란에서는 회원사의 희망순서에 따라 매월 1~2개사를 소개할 예정이오니 자사 소개를 원하시면 편집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